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북한 고층아파트 값 급락

▲ 북한 평양의 고층 아파트

북한의 평양과 신의주 등지에 신축된 고층 아파트 값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양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에 새로 지어진 고급 살림집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며 "특히 고층 아파트 판매가 매우 부진하다." 고 11일 소개했다.

소식통은 고급 살림집 가격 하락과 관련해 "돈주 (북한의 신흥 자본가)나 특권층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 라며 "게다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소식이 돈주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소식통은 "돈주들의 경우 이미 고급 살림집을 살 만큼 샀기 때문에 더 구매하려 들지 않는다." 며 "구매 의사가 있던 돈주들도 살림집 가격이 떨어지자 관망하며 매입을 미루고 있다." 고 진단했다.

또 "당의 부패 간부 척결 방침도 고층 아파트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자금 출처를 둘러싸고 당국으로부터 의심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고급 살림집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요즘 고층 아파트를 구입가 아래로 내놓는 이도 적지 않다." 며 "내부 장식에 들어간 거금은 포기하고 구입 원가에 내놓은 사람도 있다." 고 전했다.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유엔 제재가 풀리기는 글렀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연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멕시코 '인신매매' 혐의 한인 여성 석방 … 3년2개월 만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3년 넘게 수감됐던 한인 여성이 석방됐다.

14일 'SBS' 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보호시설에 수용됐던 양 모(41) 씨가 이날 강제추방 형식으로 출국했다. 앞서 멕시코시티 형사법원은 지난 11일 양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열어 연방 헌법소원(암파로, 수사기관 구속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항고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씨 측이 제기한 암파로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연방 헌법소원 1심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양 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변호인·영사 조력 없이 이뤄진 만큼 무효라며 2016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 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2016년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최근까지 3년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다. 양 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약혼남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제대로 영사 조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 양 씨(작은 사진)가 수감돼 있었던 멕시코 산타 마르타 교도소

같은 사건으로 2017년 9월 체포돼 구속기소 된 업주 이 모 씨는 연방 항고법원의 암파로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간 사법체계와 혐의사실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 등이 많이 달라 소송이 장기화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작년 EU 망명신청자 '난민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소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사람 수가 2015년 난민 위기 발생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 '연합뉴스' 가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작년 처음으로 EU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8만800명으로 지난 2017년(65만4천600명)에 비해 11% 감소했다. 이는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수준이다. '난민 쓰나미' 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 EU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125만6천600명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독일(28%)이었고 프랑스(19%), 그리스(11%), 스페인(9%), 이탈리아(8%), 영국(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반(反)난민을 내세우는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한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해 망명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61%나 감소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에 키프로스의 경우 망명 신청자가 70% 늘었고 스페인(60%), 벨기에(29%), 네덜란드(27%), 프랑스(20%) 등도 전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

출신국별로는 시리아가 8만800명(14%)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가니스탄(4만1천명, 7%)과 이라크(3만9천600명, 7%)가 그 뒤를 이었다이들 세 나라 출신이 전체 망명신청자의 거의 30%에 육박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87만8천600명이 EU 회원국의 망명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말의 경우 대기자가 92만7천명으로, 약간 더 많았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Tel: 714.530.1367 / Fax: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